

	보도참고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FTA”
	보도일시	배포 즉시	
생 산 일	2006.11.23	생산부서	한미 FTA체결지원단
과 장	나 석권 기획총괄팀장 이 철화 홍보기획팀장	담당자	김병환(2100-4472) 이은민(2100-4482)

**제 목: 한미 FTA 관련 11.20일 방송된 KBS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에 대한 입장**

지난 11.20일 23:40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KBS 1TV
에서 방송된 시사기획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첨부> KBS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건전한 비판과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 KBS 씬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일에 방영된 KBS의 '쌈 -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중요 국가정책인 만큼 다양한 언론의 취재와 국민적 관심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정부의 정책 추진 담당자에게 건장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언론보도로 인해 늘어난 국민적 관심은 정책추진력을 배가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미FTA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취재에 대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의 인터뷰 의뢰에도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와 비판 의도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시적인 문제나 일방적인 주장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균형감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정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갖고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수 시청자들에게 오도된 인상을 남기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동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정부 자료'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매우 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면 바로 수정·보완할 열린 자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사전 취재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자가 정부 발표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인터뷰의 기본인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다

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을 마치 기자의 의심을 증명하는 자료인양 편집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시청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정부 정책에 대해 특별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동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반론과 설명이 가능하나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호주의 수출 증가율 수치를 정부가 조작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제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에서는 같은 페이지 하단의 각주를 통해 분명히 주석에서 '05년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빼고 마치 아무런 설명 없이 '04년 통계자료를 사용한 듯 방송한 것은 의도적인 사실왜곡입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래 동안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개검증을 하기 희망해왔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시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보도에서는 이런 사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연구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고 통계조작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태분석 결과인 7.75%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태분석 결과인 0.7%를 비교하여 연구원을 허풍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본 시청자는 연구원의 정태분석 결과는 0.42%로 오히려 미국측의 분석결과인 0.7%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도 없을뿐더러 연구원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장밋빛 미래나 선전하는 곳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지 못하고 단순 봉제수준에 머물러 있는 멕시코 섬유산업과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을 단순비교 하는 것,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에 900만개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일자리 수에 미흡하다는 논문을 근거로 NAFTA의 효과를 폄하하는 것, 모든 선진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몇몇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등등은 정부로서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몇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은 비록 미시적인 '사실(fact)'일지는 몰라도 결코 '진실(truth)'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해 협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그 결과가 협상과정과 후속대책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생산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위해 그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적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참여와 생산적인 토론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에 제시한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KBS의 '쌈 -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프로그램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고, 비판의 당사자인 정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쌈' 제작진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부의 진정성과 동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KBS '쌈' 제작진에게 건전한 비판과 균형 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23일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

< 첨부 >

11.20일 KBS1TV 『쌈』
“정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입장

06. 11. 23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1. 조작된 성장률

-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FTA체결이후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홍보하면서 미국과 처음 FTA(CUSFTA)가 체결된 89년이 아닌, NAFTA 체결연도(94년)를 기준으로 하여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간을 고의로 제외

□ 정부가 고의로 캐나다 성장률 일부를 누락한 것은 아님

- ①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06.4월에 작성한 “미국이 맺은 FTA분석” 보고서로서
 - 멕시코를 포함한 NAFTA의 체결 시점(94년)이 지속적 관심이었기 때문에 94년을 전후로 분석을 하였던 것으로 결코 89~93년의 경제성장율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 『쌈』이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인터뷰한 캐나다의 Council of Canadians의 홈페이지에서도 NAFTA를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
 - 또한, CUSFTA 체결시점인 89년이후의 낮은 경제성장율은 걸프전, 고유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정책 등에 기인
- ②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등에서는 80년대이후 캐나다 경제성장과 관련된 통계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 정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9.15일 방송된 MBC-TV 『W』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 관련 보도참고자료(9.19, 한미 FTA체결지원단)

* “한미 FTA, 궁금하십니까 ? 주요 Q&A를 중심으로”(06.10월,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 MBC-TV 「W」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
(9.15일 방송) 관련 보도 참고자료 >

	보도참고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FTA*
	보도일시: 매주 목요일 생산부서: 한미 FTA제결지원단		

「깨어진 약속, 캐나다 FTA」 방송 관련 입장

【 총 론 】

□ 동 프로그램은 캐나다가 캐나다-미국간 FTA(CUSFTA, 89년 발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94년 발효)이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캐나다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캐나다 경제의 참모습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

□ 캐나다 경제는 90년대 중반이후 높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건실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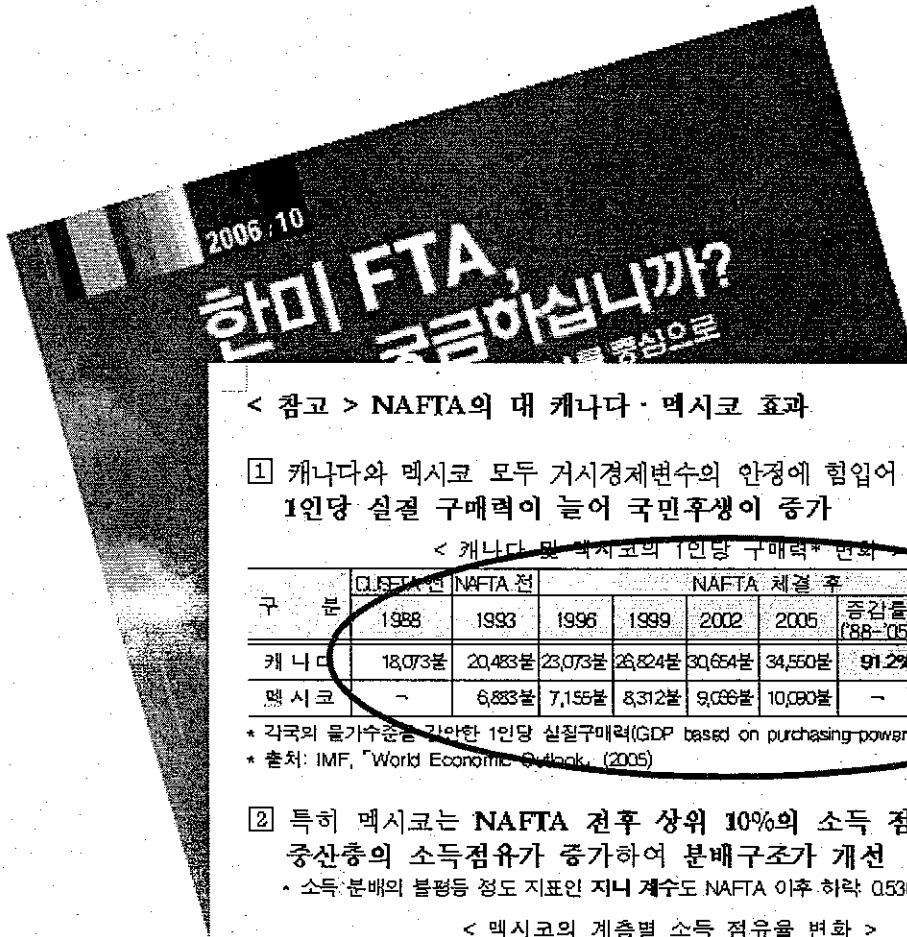
	'81~'93	'94~'00	'01~'04
경제성장률(평균, %)	1.8	4.0	2.5
(OECD평균)	(2.3)	(3.2)	(2.0)

재정수지/GDP(%) -3.8('88) → -5.8('93) → 1.3('01)

※ 자료원 : IMF, OECD

<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발간

“한미 FTA, 궁금하십니까? - 주요 Q&A를 중심으로 >



< 참고 > NAFTA의 대 캐나다·멕시코 효과

- ①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에 힘입어 NAFTA 체결후 1인당 실질 구매력이 늘어 국민후생이 증가

< 캐나다 및 멕시코의 1인당 구매력* 변화 >

구 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한국 (2005)
	1988	1993	1996	1999	2002	2005	증감률 (88-05)	증감률 (93-05)	
캐나다	18,073불	20,483불	23,073불	26,824불	30,654불	34,550불	91.2%	68.7%	22,666불
멕시코	-	6,883불	7,156불	8,312불	9,066불	10,080불	-	46.6%	

*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실질구매력(GDP based on purchasing-power-parity per capita)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 ② 특히 멕시코는 NAFTA 전후 상위 10%의 소득 점유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소득점유가 증가하여 분배구조가 개선

•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지표인 지니 계수도 NAFTA 이후 하락 0.53(92) → 0.51(02)

< 멕시코의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 >

구 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한국 (2005)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증감률 ('92-02)		
하위 20%	3.5%	3.3%	3.6%	3.1%	3.3%	3.7%	↑0.2%P		10.1%
중위 40%	18.4%	17.7%	18.9%	18.2%	18.3%	19.4%	↑1.0%P		28.3%
중상위 30%	34.5%	34.4%	35.2%	34.2%	34.2%	35.6%	↑1.1%P		38.2%
상위 10%	43.6%	44.6%	42.3%	44.6%	44.3%	41.3%	↓2.3%P		23.4%

2. 사라진 6년의 허상

- 정부는 FTA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멕시코 섬유산업의 경험을 볼 때 사실이 아님

□ NAFTA가 멕시코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94년부터 '00년까지 멕시코 섬유/의류부문의 대미수출은 연 27% 성장하고, 시장점유율도 크게 증가

* 대미시장 점유율 : (의류) 5.2('94) → 14.6%('00)
(섬유) 3.5 → 9.3%(출처 : 멕시코 통계청)

□ 다만, 동 기간중 멕시코 섬유산업을 보다 고도화하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 '00년이후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증가, 미국의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관세차별 철폐 등으로 인해 낮은 인건비·관세혜택 등에 의존했던 멕시코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섬유산업은 i) 낮은 인건비에 의존한 봉제산업 수준의 멕시코에 비해 월등히 고도화되어 있어, ii) 관세철폐로 인한 FTA의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섬유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단순히 멕시코 섬유산업의 침체를 이유로 한미 FTA가 섬유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3. 수출증대의 허상

- 호주는 미국과 '05년부터 FTA를 시작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04년에 시작한 것으로 연도를 바꿔치기 했음. 유리한 통계치만 끌어내서 FTA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또다른 조작사례

□ 동 방송에서 인용한, '06.4월에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이 맺은 FTA분석” 보고서 29쪽의 각주 17과 본문, <표 2-8 >에 의하면

- 미국-호주관련 통계가 2004년과 그 이전 통계(93-03년)를 비교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 그 이유로서 “호주는 협상이 2004년 2월에 완료되었고, 효력은 2005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2005년 통계 자료*미비로 인해 효력 발생전후가 아닌 협상완료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 UN 자료

□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두 빼고 동 보고서가 아무 주석없이 자료를 작성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임

< KIEP "미국이 맺은 FTA 분석" 보고서 중 관련부분 >

나. 무역

- 대미국 수입을 제외한 대미국 수출, 대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FTA 협상완료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음.

<표 2-8> 호주의 미국과 FTA 협상완료 전·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산 업	대미국				대세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이전	이후
농수산물	2.85	16.54	6.61	4.81	5.52	44.90	7.12	12.95
농수산물 1차 가공품	33.57	18.02	7.20	2.07	8.52	27.16	11.50	15.18
광산물 1차 가공품	-0.73	10.35	-0.75	0.62	9.95	27.45	17.03	41.76
화학제품	30.79	1.93	8.60	6.50	16.94	20.35	11.44	21.97

가
국
선
비
금
속

17) 호주는 협상이 2004년 2월에 완료되었고, 효력은 2005년 1월 1일로 발생하여, 2005년 통계 자료미비로 인해 효력 발생전후가 아닌 협상완료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

합 계	52.00	79.01	17.01	6.90	17.31	28.37	11.09	24.70
기 타	301.11	230.65	6.87	-3.59	271.22	218.19	-4.60	808.43
총 계	8.78	14.05	6.17	4.24	7.87	38.42	10.39	24.56

주: 이전의 기간은 1988년~2003년이며, 이후의 기간은 2004년임.

자료: UN COMTRADE(<http://comtrade.un.org/unsd/comtrade/default.aspx>)

17) 호주는 협상이 2004년 2월에 완료되었고, 효력은 2005년 1월 1일로 발생하여, 2005년 통계 자료미비로 인해 효력 발생전후가 아닌 협상완료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비교.

4. 일자리 창출, 절반의 진실

- 정부는 멕시코가 NAFTA이후 10년간 일자리가 993만개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필요한 일자리는 이의 2배 수준인 1,800만개였음
- 멕시코의 실질임금은 하락 : 100(94) → 80.5(98) → 91.9(01)

□ 동 방송에서 NAFTA이후 멕시코에 필요한 일자리라고 주장한 1,800만개는 같은 기간중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수준으로 보임*

- NAFTA이후 생산가능인구 전체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고용효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수긍하기 힘든 비판임

※ 동 방송에서 인터뷰한 아로요 멕시코대 교수의 논문(NAFTA in Mexico : Promises, Myths, and Realities)에서는 NAFTA이후 9년간 80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나 이는 노동시장에 새로 편입된 15-62세 인력에 필요한 일자리의 53.4%에 불과하다고 평가

원문 : During the first nine years of NAFTA, just 8,073,201 new jobs were created in the country. That is a 46.6 percent deficit compared to the number necessary to provide jobs to people aged 15-62 entering the workforce

- 실제로 '94년에 58.7%인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15~64세)은 '04년에 60.8%로 상승(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한편, 멕시코의 실질임금은 90년대 중반 외환위기로 인해 크게 하락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중

- 방송에서는 '01년까지만 보도하였으나 이후도 지속 상승

- '94년대비 현재의 실질임금은 감소하였지만, 폐소화위기라는 큰 충격에 의해 대폭 하락하였다가 서서히 복원되고 있는 점을 방송에서는 언급되지 않음

* 115.4(94) → 93.0(98) → 106.7(01) → 110.2(04) (출처 : IMF)

- 정부는 KBS스페셜 관련 보도자료(6.5)에서 "95년 폐소화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를 시현"하고 있다고 기언급한 바 있음

< KBS 스페셜 관련 보도자료(6.5) >

 보도참고자료		• 필요로운 나라 일깨우는 선진경제 • 고졸집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재정경제부 생산일 담당과장	보도인사 죽 시 경제협력국 통상기획과	2110-2534
제 목 : 1 - 6.4일	☐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12	☐ NAFTA 때문이라기 보다는 '95년 폐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개가 없었음	
☐	* 당시 멕시코내 정치불안(농민반란, 여당지도자 피살등), 경직적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등에 의하여 '95년 폐소화위기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를 시현	
☐	* '00년 Fox 후보가 71년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하였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재정, 에너지, 노동시장등에 대한 구조개혁정책이 지연되어 잠재성장률이 저해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	
☐	○ 멕시코 정치계, 학계, 산업계 내에서도 NAFTA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인터뷰가 주종	
☐	* Public Strategies사 대표 (루이스 델 라카예) : "NAFTA를 계기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국제적 상업국가로 발돋움" (한겨레 5/23 보도)	

5. 경영선진화의 빛과 그림자

- 외국에 본부를 둔 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여 수익논리를 쫓아 손쉽게 폐쇄함으로써 경영선진화보다는 고용이 불안해 짐

□ 상기 주장은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필요

○ 전세계가 치열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갖는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

* '05년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순위

: (1위) 영국 (2위) 미국 (3위) 중국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27위) 한국

○ 외국인 투자가 고용을 증가시킨 사례도 다수

- GM 대우의 경우 '02.10월 국내진입후 매출증가로 해고된 근로자를 모두 복직

* 01.2월 해고 근로자 1,700여명중 복직희망자 전원 복직완료(06.5월), 시설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고용규모 증가(02.10월 11,610 → 06.2월 18,577명)

- 00~04년간 외국인 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규모의 20%(LG경제연구원)

□ 정부는 한미 FTA의 노동시장 효과(고용조정 등)를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선진국 사례를 감안하여 FTA 피해근로자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특히,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이외에도 FTA로 인한 피해근로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06.4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중

6. 얼굴없는 7%의 성장보고서

- 한미 FTA 체결시 USITC 보고서는 07% 성장률 증가를 예측한 반면, KIEP는 7.75% 증가를 예측하고 있어 10배 이상 차이가 남
- 민노당 정책연구원, 신범철 경기대 교수에 따르면, KIEP 분석을 재현하였으나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고 조작과 의혹의 가능성이 있음
- 심상정 의원은 KIEP가 사용한 변수와 parameter를 비공개하는 것은 조작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언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명자료 별첨

【별첨】 KIEP, 해명자료

KBS '쌈'에 대한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얼굴없는 7%의 성장보고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먼저 본 연구원은 본 보도에 앞서 11월 17일(금) 담당 연구자들이 KBS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연출자 및 취재기자를 면담하고 장시간 동안 보도와 관련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함.
- 먼저 보도내용에 의하면 미국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국의 성장률은 고작 0.7%에 불과한데 반하여, 본 연구원(KIEP)의 추정치는 이의 10배가 넘는 7%를 예측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결국 본 연구원의 추정치는 FTA성과를 부풀리기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결론짓고 있음.
- 그러나 이 둘의 추정모형은 서로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모형임. 즉, 이는 양자의 모형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서 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미국무역위원회에서 사용한 기본모형은 CGE 정태모형으로 본 연구원이 이와 똑같은 모형으로 추정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2%임(아래의 표 참조). 따라서 보도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0.7%와 0.42%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함. 다시 말해서 본 연구원의 추정치가 오히려 미국무역위원회의 추정치보다 더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실질GDP 성장률이 7%이상 추정되는 것은 몇 번에 걸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한미 FTA에 따른 단순한 관세철폐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증대 효과까지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임.

<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42% (29억 달러)	1.99% (135억 달러)	7.75% (352억 달러)
고 용	△0.51% (△85천명)	0.63 (104천명)	3.30% (551천명)
후생수준	0.61% (24억 달러)	1.73% (68억 달러)	6.99% (281억 달러)

주: 본 시나리오는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임.

□ 둘째, 보도내용 중 민노당 정책연구원 및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인터뷰 등에서 본 연구원이 사용한 동일한 프로그램과 가정 하에서 추정을 재현하였으나,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본 연구원은 이미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추정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가정을 세우고 동일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믿고 있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노당 정책연구원이나 경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CGE 모형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하여 서비스업의 기대효과를 크게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당연히 서비스업의 개방까지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 바, 본 연구원의 추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음.

- 민노당 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추정에서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며, 설령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가 본 연구원이 사용한 것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의 개방을 추정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추정한 본 연구원의 추정결과와 이를 배제한 상태로 추정한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됨.

□ 셋째, 심상정여원의 인터뷰 등에서 본 연구원이 추정에 사용한 변수와 parameter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조작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임. 즉, 민노당 정책연구원, 경기대학교 교수 등의 인터뷰에서 본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와 parameter 값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원과 동일한 가정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추정하였다고 하면서, 본 연구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임.
-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권영길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당시에는 기본모형과 특징, 산업 및 국가분류, Shock의 내용, parameter 값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후 국정감사기간 동안 민노당 심상정의원에게 몇 번에 걸쳐 CGE 모형의 Solution 방식과 선택이유, 요소선정의 변경여부, 자본축적모형의 Closure 선택과 외생 변수의 변경 내용,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방법과 타당성 근거, 생산성증가 shock 주입을 위해 선택한 정책변수 명칭과 shock의 수치, Factor의 ETRAE value의 수치 및 mobile의 경우 그 여부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CGE 모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경우, 본 연구원이 추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본 연구원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형 추정작업의 전과정을 공개검증하기를 희망하여 왔음.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민노당 권영길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민노당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보좌관 앞에서 시연을 한 바도 있음. 특히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지난 9월 29일 공개검증을 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국회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음.